

김현미 장관, “피해시설 신속복구·예방에 만전 기해야”

-11일 도로·철도·하천시설 피해·복구현황 점검·각별한 대비 강조

-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8월 11일 풍수해대책상황실과 8개 지방청장, 한국도로공사·한국철도공사 사장 등이 참여하는 ‘집중호우 피해 및 복구상황 긴급점검회의’를 개최하였다.
- 이 자리에서 김현미 장관은 도로·철도·하천 등 국토교통 분야 시설의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피해시설의 신속하고 면밀한 복구와 철저한 대응체계 유지에 만전을 당부하였다.
 - 특히, “장마가 50일 가까이 계속되면서 전국 곳곳을 강타한 집중호우의 상흔으로 산사태와 각종 시설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”면서,
 - “지반이 매우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, 게릴라성 집중호우가 지속되고 있으므로, 피해가 예상되는 도로·철도 시설물, 하천 제방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”할 것을 당부하였다.
 - 또한, “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로의 통제, 철도운행 중단 등의 사실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안내하고 교통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줄 것”을 당부하였다.
- 마지막으로 김현미 장관은 “장마가 끝나더라도 추가피해가 없도록 소관시설에 대한 일제점검을 추진하여 미흡한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철처하게 보강해야 할 것”이라고 덧붙였다.
- 한편, 8월 1일부터 내리기 시작한 집중호우의 영향으로 8월 11일 현재까지 도로, 철도 등 국토교통부 소관 시설에서 발생한 피해는 총 156건이다. 이중 127건은 응급복구를 완료하였고, 현재 29건은 복구 중에 있다.

2020. 8. 11.

국토교통부 대변인